



관악별장

‘관악별장’은 제가 태어난 1965년에 지어져 지난 60여 년간
아버님이 정성스레 심고 가꾸어 온 가족별장입니다.

‘카페 관악별장’은 할아버지, 아들, 손주 3대의
행복한 추억이 새겨진 시공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
가족별장의 담을 허물어 마련된 공간입니다.

1대 부모님이 즐겨 드시던 ‘썩차와 말차’부터
2, 3대가 수십여 년간 뉴욕, 파리에서 유학하고 근무하던 중
찾아낸 ‘커피와 디저트’까지 1, 2, 3대 최애 메뉴들을
관악별장 시그니처 수제 메뉴로 선보입니다.

별장에 놀러 온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을 담아
엄선한 재료들로 정성껏 만든 음식들과
세월의 정겨움이 곳곳에 묻어나는 정원을 맘껏 즐기며
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

관악별장 대표와 가족 드림